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음 9월 13일) 제16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홍삼이 있어 즐거운' 진안홍삼축제의 풍경 속으로



12일 진안군 마이온 테마공원에서 '2016 진안홍삼축제'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①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콩주머니 바구니에 많이 집어 넣기' 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 소리와 함께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②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단체줄넘기' 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타이밍에 맞춰 줄을 넣고 있다. ③홍삼축제 축제장을 찾은 전북현대 선수단이 팬사인회를 갖고 있다. 이날 로페즈는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주민들과 미주했다. ④축제장에 마련된 수삼 판매 상점에 손님들이 모여들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취소 위기

보건복지부, 교통사고 당한 아이가 치료 거부당해 숨진 사건 발생 따라 검토 예정 비상진료체계 등서 문제 발생... 징계안은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

정부가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병원 13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에 대한 엄중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의 결과 전북대와 을지대

등 당시 환자 치료를 거부한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권역외상센터는 24시간, 365일 중증외상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시설·장비구매비로 80억 원을 받고, 연차별 운영

비로도 7억~27억원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6~7일 1차 현지조사와 10일 2차 현지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환자가 처음 방문한 전북대병원에서 비상진료체계, 전원·진료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숨진 김모(7)군은 지난날 30일 오후 5시에 어린이집을 떠나 외할머니(72)와 함께 건널목을 건너다 후진하던 10t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김군은 인근 종합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지만, 외할머니와 김군 모두를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전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을 알아봐야 했다.
의료진이 전국 13개 병원에 김군 치료를 의뢰했지만,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다', '현재 수술실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중상을 입은 김군을 치료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결국, 김군은 사고를 당한 지 7시간 여가 지나 아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외할머니도 김군이 사망한 지 2시간 만에 사망했다. /고민형 기자



김제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표지석 2개. 김제시는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녀간 곳이라며 극존칭으로 쓴 방문 기념비를 세웠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염원을 치사하시었다' '극존칭' 쓴 기념비 2개 김제시, 50년 전에 세워

시민단체 '독재 미화' 비판 김제시 "사실 홍보일 뿐"

김제시가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녀간 곳에 극존칭으로 쓴 방문 기념비를 세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김제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은 12일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절규를 박근혜 정권이 물대포로 대응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던 지난해 11월, 김제시가 소리소문 없이 박정희를 미화하는 기념비를 2곳에 세웠다"면서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의 전통이 면면히 흐르는 김제 땅에서 친일과 독재의 인물을 신격화하는 망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념비의 즉각 철거를 촉구했다.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극존칭 기념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야산개발 기공 기념비에는 "1966년 9월21일 (중략) 호남 야산개발사업 기공식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우리 김제의 번영을 염원하시었다"고 적혀 있다. 또 양수장 통수 기념비 역시 "1966년 7월5일 월촌지구 전전후 농업용수원 개발사업 준양수장 통수식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잘사는 농촌건설의 염원을 치사하시었다"고 새겨졌다.

이에 대해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야산개발 기공 기념비의 경우 종전에 철광으로 만든 안내면이 있는데도 극존칭을 써가며 미화해 다시 만들었다"면서 "기념비를 즉각 철거하고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제시 관계자는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한 기념비가 아니라 표지석으로서,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됐던 국가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3~4년 전부터 계획해 세운 것"이라며 "식량난 해결이라는 국가과제를 위해 추진된 이들 사업은 지역 경제, 향토사 측면에서 볼 때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극존칭을 쓴 것은 당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참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4~2016 3년연속 우수축제
전주매일의 창간8주년을 축하합니다
2016.10.13(목)~10.16(일) 4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제1회 순창장류축제

상설체험코너 -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기, 전통장류 소스 만들기, 장류 캐릭터 메주만들기, 메주먹은 장어잡기

붉은옷 착용시 농특산물·먹거리 할인 혜택

순창읍 시가지 - 축제장 셔틀택시운영

주최/주관: 순창군/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www.jangfestival.co.kr

10월 13일(목)	10월 14일(금)	10월 15일(토)	10월 16일(일)	
09:00 ~ 12:00	관객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놀이마당	10:00 ~ 12:00	어린이 장류 그림그리기 대회 민속마을	
14:00 ~ 16:00	장&뮤직 뽕떡 인디밴드 공연 주무대	11:00 ~ 12:00	순창농요 관과들소리 공연 주무대	
17:30 ~ 18:20	축제 서막 주무대	12:00 ~ 13:00	장류주먹발 모자이크 부무대	
18:20 ~ 20:00	청정원과 함께하는 여는 공연 (설문도, 침수라, 주병선, 이애란, 티고, 오로라, 이진관 등) 주무대	13:00 ~ 14:00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민속마을	
20:00 ~	민속마을 EDM 불빛쇼 민속마을	14:00 ~ 16:00	전북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연극) 주무대	
		14:00 ~ 16:00	순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부무대	
		16:00 ~ 17:00	민속춤터 공연 놀이마당	
		17:00 ~ 18:00	순창 5대명장 추모공연 주무대	
		18:00 ~ 20:00	전북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뮤지컬) 주무대	
		20:00 ~	민속마을 EDM 불빛쇼 장류마을 춤비야 놀자 민속마을	
			09:00 ~ 13:00	농악 퍼레이드(음연 농악경연) 주무대
			12:00 ~ 13:00	2016인본 떡볶이 만들기 부무대
			13:00 ~ 14:00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민속마을
			14:00 ~ 16:00	순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부무대
			15:00 ~ 17:00	전북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뮤지컬) 주무대
			18:00 ~ 20:00	기회 콘서트(소찬휘) 주무대
			20:00 ~	민속마을 EDM 불빛쇼 민속마을

특별 부대행사

- 제2회 전국시도연인대상 경향대회 / 10. 13(목) 09:30 순창국악원
- 제12회 장류국제포럼 / 10. 14(금) 13:30 순창군장류사업소세미나실
- 제13회 순창고추장요리경연 / 10. 15(토) 13:00 순창군 국민체육센터